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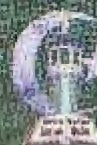


예수 - 이슬람의 관점

Jesus (peace be upon him) - An Islamic View

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WAMY,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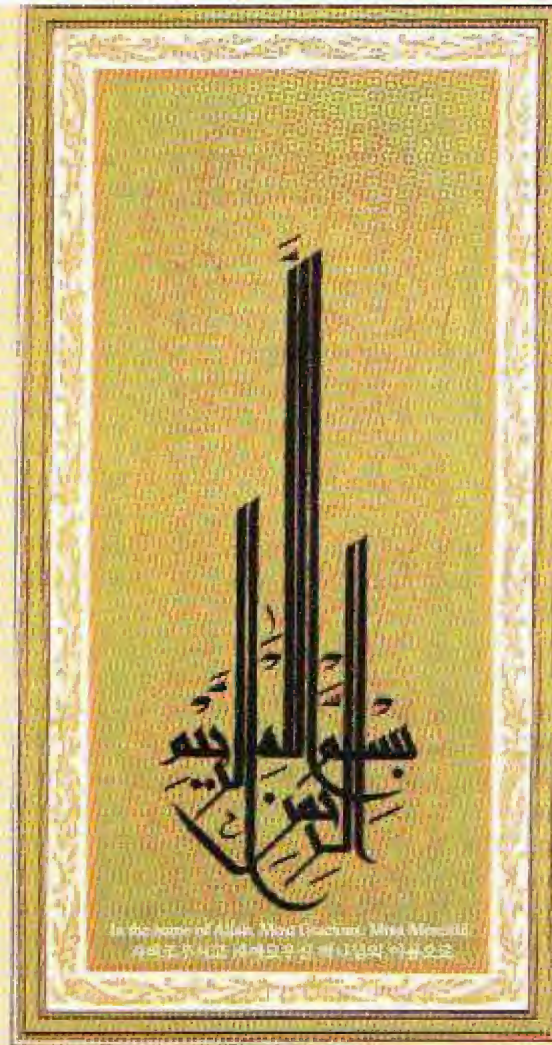
옮김 : 아이샤 양지이 *Translated by Aisha Yangjie*



아담출판사

꾸란 제19장 마리아

성서에 있는 그대로 마리아에 관하여 이야기하라 그녀가 가족을 두고 동쪽 어느 곳으로 떠났던 얘기이니라
그들이 보지 아니 하도록 그녀가 얼굴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니 그는 그녀앞에 사람처럼 나타났더라
이때 그녀가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구원하나이다 실로 당신이 경건한 자라면 저를 해치지 마소서 라고 말하매 그가 말하길 실
로 나는 당신 주님의 사자로써 성스러운 아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하니 그녀가 말하길 어느 남자도 저를 접촉하지 아니했
고 또한 부정을 저지르지도 아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에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리라 당신의 주님께서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라 그로하여금 백성을 위한 예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
혜가 되도록 이미 그렇게 명하여진 일이었노라 그리하여 그녀는 잉태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더라
출산의 진통이 심하여 그녀는 종려나무 줄기에 기대고 말하길 이전에 죽어버렸다면 조용히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종려나무
밑에서 천사가 그녀를 부르더니 슬퍼하지 말라 네 주님께서 네 밑에 흐르는 냇물을 두셨노라 종려나무 줄기를 네가 있는 쪽으로 흔
들어라 그러면 잘 익은 열매가 너에게로 떨어지리니 먹고 마시어 마음을 평안케 하라 그리고 네가 사람을 만나거든 저는 하나님께
단식할 것을 맹세하였으매 오늘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여라
얼마 후 그녀가 아들을 안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니 마리아여 너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라고 조롱하더라 아론의 누이여 너
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네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노라
그러자 그녀는 그애를 가르켰더라 이때 모두가 요람안에 있는 아기와 어떻게 말을 하란 말이뇨 라고 말하더라
아기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택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 저를 축복받은자로 하셨고 제가 살아있는 한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의 모친
에게 효도하라 하셨고 저로 하여금 거만하지 아니하고 불행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탄생한 날과 제가 임종하는 날에 제가 살
아서 부활하는 날에 저에게 평화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은 그들이 논쟁하는
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가질 필요가 없노라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 말씀을
내리시니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요 너희 주님이시니 그분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리들이 의견을 달리하니 위대한 심판의 날 불신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날 그들은 분명히 들을 것이며 또 분명히 보리라 그러나 오늘의 어리석은 자들은 분명히 방황하게 되리
라 그들에게 고통의 날을 경고하라 그들이 믿음을 게을리 할 때 일은 결정되어지노라 진실로 하나님은 대지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을 삼속하나니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노라(꾸란 19:16-40)



Jesus (peace be upon him) - *An Islamic View* المسيح والنظرة الإسلامية
예수 - 이슬람의 관점

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 (WAMY. U.K)

옮김 : 아이샤 양지이 Translated by Aisha Yangjie



AUTHORISATION

WAMY. UK is happy to authorise from IQRA in Korea to translate into Korean language
this material is International Qur'an Research Association(Korea) and distributed free of charge.

Yours sincerely

Dr. Nouredine Miladi
Director - WAMY. UK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 이슬람의 관점 (Jesus - An Islamic View)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꾸란과 무함마드의 말씀을 담은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수세기에 걸쳐 무슬림 사회에 전승이 되어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종종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가르침과 경전을 통하여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해한다. 반면에 교회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역사적 문제이다. :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승을 이어받고, 예수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전승을 이어받고, 모세(그 분들에게 평화와 깃들길)를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에 기원을 두고 있다.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반대로, 꾸란과 성경은 믿음과 실천, 미덕에 대해 공통된 기반을 갖고 있다. 하나님, 천사들,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 예배, 자선, 단식의 미덕, 진실됨, 인내,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것-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과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두 종교는 세계의 주요 종교들 중 여러 면에서 가장 가까운 종교이다.



초기 무슬림들은 기독교 국가였던 아비시니아에서 보호를 받았다.

(Early Muslims granted protection in Christian Abyssinia)



이 두 종교에 내재되어있는 공통된 기반은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시길)께서 초기 무슬림 중에서 핍박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 국가였던 아비시니아(현재의 이디오피아)로 이주할 것을 권고했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 성립되기 전 무슬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랍 부족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주해야만 했다. 이는 무슬림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메카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아프리카에까지 무슬림의 뒤를 쫓아와 네구스에게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을 때, 아비시니아의 왕은 적은 수의 무슬림들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물었다.

"당신들이 나의 종교나 다른 부족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당신들을 당신 부족의 사람들과 단절시키는 이 종교는 무엇인가?"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그들의 대변인이었던 자파르는 대답했다. "오, 왕이시여, 우리는 무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살되지 않은 고기를 먹고, 추행을 저지르며 강자가 약자를 집어 삼키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활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문의 사람이었

고, 진실 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성실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증언하고, 그 분만을 경배하며, 우리와 조상들이 지금까지 돌과 그 밖의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항상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며 친척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이웃의 권리를 지켜주고, 해악과 살인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고, 그 분외의 다른 것과 비유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금지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허용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항했으며, 우리의 종교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때로 돌아가도록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당신을 선택하여 이곳까지 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보호 아래 행복했습니다." 네구스는 예언자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어떤 계시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자파르는 꾸란의 '마리아'장의 다음 구절을 낭송했다.

'성서에 있는 그대로 마리아에 관하여 이야기하라 그녀가 가족을 두고 동쪽 어느 곳으로 떠났던 애기이니라 그들이 보지 아니 하도록 그녀가 얼굴을 가리 율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니 그는 그녀 앞에 사람처럼 나타났더라. 이 때 그녀가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구원 하나이다 실로 당신이 경건한 자라면 저를 해치지 마소서 라고 말하매 그가 말하길 실로 나는 당신 주님의 사자로서 성스러운 아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하니 그녀가 말하길 어느 남자도 저를 접촉하지 아니했고 또한 부정을 저지르지도 아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에 그가 말하

길 그렇게 되리라 당신의 주님께서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라 그로 하여금 백성을 위한 예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이미 그렇게 명하여진 일이었노라' (꾸란 19:16-21)

자파르의 낭송과 뒤따른 이 구절의 번역을 들은 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대답하길, '이는 예수가 가져온 것과 같은 근본에서 나온 것이라.' 그리고 아랍 부족의 바램과는 달리 무슬림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여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을 안 부족민들은 예수와 관련하여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를 드러내어 유일신 사상에서 사촌 관계에 있는 이 두 종교에 대한 왕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왕은 다시 한번 무슬림들을 불러들였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해 말해 보라."

자파르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께서 가르쳐주신 것으로부터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언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처녀 마리아에게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혼이고 말씀입니다."

네구스는 곧 나무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는 말했다. '예수는 당신이 말한 것으로부터 이 지팡이 길 이만큼의 차이도 없소.' 이것이 기독교가 이슬람과 처음 만난 장면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관대한 기독교인 왕의 보호 아래 이슬람이 처음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예수에 대한 기독교의 다른 관점들 (Differing Christian views on Jesus)



아마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나 '구세주'란 수식어가 없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수도 있다. 하지만 네구스 왕은 예수 사후 수세기 후 기독교가 탄생한 동방에서 일어난 신학의 다양한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기독교인들은 초기부터 크게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즉, 예수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룹과, 예수에 관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첫번째는 예수의 제자들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았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었으며, 모세의 법을 따랐다. 예수는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이러 왔다' (마태오5:17)고 말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가 새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사원에서 경배를 하였고, 주위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메시아가 왔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주교 아리우스가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이후, 아리우스파의 사람들(Arians)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바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카리스마적인 연설자였다. 바울은 그의 개종 이전 그의 지배하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바울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비유대인들에 대한 전도에 전념을 하였는데, 구약 성서와의 괴리감을 심화시켰다. 그

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원죄의 개념과 낙원에서의 추방,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삼위일체(로마, 이집트와 이교도 국가들에서 널리 알려짐)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켰다.

니케아 공의회 (The Council of Nicea)

두 그룹사이의 불일치는 4세기에 이르러 극대화 되었다. 로마황제 콘스탄틴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진실된 믿음의 문제를 단 한번에 완전히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 공의회 중 황제가 삼위일체의 신조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주교들은 교리에 관해 논쟁하기 위해 처음으로 다 같이 모였다. '성자, 성부와 성령'의 삼위일체 신앙 강령이 대다수의 주교들의 찬성표를 받았다. 반대의 의견을 가진 주교들은 갑자기 이단자로 규정되었고, 그들의 저서는 금지되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복음서들은 불태워졌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가톨릭 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각 교회에서 그때까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던 수많은 복음서들과 책들이 예수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보여 지면 무조건 파기되었다: 신약에는 바울의 충고하는 서간들과 함께 오직 네 권의 복음서만이 남겨지게 되었다. '종교의 통합'을 위한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입장은 의견을 달리하는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었다. 다른 복음서들은 숨겨져야 했고, 지난 세기에 와서야 조심스럽게 빛을 발하게 되었다. 유럽의 독일계 부족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 대신 아리우스파의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후에 이것은 개신교의 개혁과 유니테리언 교회에 성립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무슬림과 기독교인들간의 종교적 차이는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주요한 불일치들과 같다. 예수의 속성과 역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존경할 수 있으며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종, 마리아의 아들 (Beloved servant, son of Mary; not 'Son' of God)



신약 성서에서 종종 모순되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꾸란은 완전한 유일신 사상을 담고 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주, 우주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 동반자나 가족을 두시지 않는 최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자든 구세주든 한 인간과 그의 창조주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중재자에 대한 개념이 없다.

혹자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아들'이나 '아버지'란 용어에는 단지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지 모른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피하는 길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독교의 관점은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반

면에, 예수는 '우상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선생님이자 본받아야 할 모범로서의 예수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고, 반면에 하나님의 장엄하심은 매우 격하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의 창조주가 전체의 모습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언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사원을 완성한 후의 말씀이 전해온다.

하나님께서 정녕 지상에 거주하실 것인가? (But will God really dwell on earth?)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절이야말로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열왕기상 8:27)

꾸란에서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인간인 아버지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창조되신 아담과 마찬가지로 예수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한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실 때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나니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꾸란 3:47).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가 스스로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표현이 '인간의 아들'(히브루어로 직역하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무슬림들이 예수가 인간임을 강조할 때처럼 말이다. '인간의 아들'이란 구절은 구약 성서에도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

여주신 명예가 얼마나 분에 넘치는 것인지에 대한 구절에서 보여 진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죄 없다 하겠는가?

그(하나님)의 눈에는 달빛도 빛이라고 할 수 없고

별들도 맑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벌레 같은 사람이라!

(욥기 25:4-6)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십니까? (시편 8:3-5)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경전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 역시 경전에 정통했음을 볼 때, 창조주 앞에서의 미약함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언급했을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논쟁

(Christian arguments against the trinity)

아리우스파, 유니테리안이나 그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경 자체의 구절에 대해 논리적 사고를 근거로 하여 삼위일체의 실재에 대해 논쟁해왔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나 이에 대한 개념을 구약 성서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것이 중요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나 다른 예언자들에게 분명히 언급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유대교 신앙의 초석은 항상 다음과 같았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이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신명기 6:4)

'너희는 내 앞에서 감히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신명기 5:7)

예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기도하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예수가 가르쳤다는 기록도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예수의 가르침이 쓰여 있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요한 5:30)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요한 14:28)

그 외 예수의 많은 말씀들이 순수한 유일신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이것이 신약 성서의 다른 구절들과 모순되고 있지만 말이다. 꾸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성서의 본문이 왜곡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추론의 예로서 유니테리언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존 비들 또는 밀턴, 과학자 뉴턴, 존 로크,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이들의 저서를 참조할 수 있다.



꾸란에 나타난 예수 (The Qur'an position on Jesus)



꾸란에 복음서(Gospel:Injil)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에게 계시된 경전이라고 쓰여 있다. 모세가 토라(Torah)를 받은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께 계시 받은 이 책으로 사람들에게 설교 했다. 초기 기독교 역사나 현대 성경의 연구를 보면 이 책의 원본은 오래 전에 잃어버려진 것이 틀림없다. 오직 그 일부만이 여러 가지 복음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조차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왜곡이 되어졌다. 이전 종파간의 이견을 명확하게 하고자 부분적으로 계시된 꾸란은 예수를 하나님의 사도로서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그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믿는 '양자론자'(Adoptionists)로 알려진 초기 기독교의 종파의 관점에 대해, 꾸란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손을 가질 필요가 없으시매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써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라' (꾸란 19:92-93)

꾸란의 다른 구절들 (The Qur'an further cautions)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혼이었노라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됨 이상으로 자만하지 아니했으니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그랬노라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를 꺼려하는 자와 교만해 하는 자 모두를 그분에게로 모이게 하리라' (꾸란 4:171-2)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기의 놀라운 사실에 대해 말했다 :

'천사들이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써 그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이니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명예를 받으시며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가운데 한분이라.'

'그는 요람과 그리고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이며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분은 (하나님) 성서와 지혜와 구약과 신약을 그(예수)에게 가르치시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로 보내리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받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새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는 장님과 문둥이들을 낫게 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죽은 자를 살게 하며 너희가 무엇을 먹으며 너희가 무엇을 집안에 축적하는가를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을 때 너희를 위한 예증이 있노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사 너희들의 주님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 (꾸란 3:45-51)

(주: '메시아'란 헤브리아 및 아랍어로 표시된 이름이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Christ',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Christos', 한국어로는 '그리스도'라 번역되어 있다. 그 뜻은 '기름으로 세례를 받음'이란 내용으로 왕들이나 교구장들은 그들 직책에 등전할 때 기름으로 성별식을 하였다.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p.93)

여기에 나타난 기적들은 성서를 읽는 현대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기적은 초기의 경전(Infancy Gospels)들에는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수 세기에 걸쳐서 동방의 교회에 회자되고 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무슬림들은 예수가 돌아오실 것을 기다린다.

(Jesus saved by God, not crucified; his return awaited by Muslims.)

예수의 삶에 관한 또 다른 논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부분이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음의 핵심으로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를 적들의 손에서 그토록 모욕을 겪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슬람에서의 설명이다. 비록 그러한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다.

예수가 못박혀 죽지 않았다면 무엇이 일어났단 말인가?

(What did happen to Jesus if he was not crucified?)

'그들의(유대인들) 불신과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크나큰 죄악이었노라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

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예수)를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성서의 백성들은 그가 죽기 전에 그(예수)가 심판의 날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노라' (꾸란 4:156-9)

이 구절들에 대한 무슬림 학자들의 우세한 해석은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에 살해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구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천상으로 올리셨다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예수가 언젠가는 지상에 돌아와 평화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역사상의 예수 : 메시아, 사도, 현자, 예언자



(The historical Jesus : Messiah, Messenger, Wise Teacher
and Prophet)



예수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것은 초기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예수는 덕이 많고 현명한 선생님이었다. 자신의 모범으로써 가르친 수행자이며 높은 위치의 사람들의 부패상에 대해 말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예언자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유대인들의 메시아였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도, 예수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위해 보내졌다고 보다는 모세의 율법에 생명을 불어넣고 새롭게 되살리기 위해 왔다. 무슬림들은 예수를 존경할 예언자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바라본다. 그리고 너무나 오해되어지고 있는 이 위대한 인물에 대한 진실에 대해 그를 불명예스럽게 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말한다.

무슬림에게는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지혜를 가르친 선생님으로서 이야기 속의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손실된 혹은 비 정성서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말씀은 후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암기되었다. 이 말씀들은 지혜의 경전 안에 담긴 것과 유사하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

예수가 말하길, '돼지의 목에 진주를 걸지 말라.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다.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돼지만도 못하다.'

예수가 말하길, '식물은 비옥한 땅에서 자란다. 딱딱한 돌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낯추는 마음에서만 생겨나지, 자만하거나 유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겨나지 못한다.'



예수와 관련된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들

(Sayings of the Prophet Muhammad relating to Jesus)



예언자 무함마드는 예수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고, 무슬림들에게도 그러할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에 대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나님에 대해 언급함이 없이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굳어질 것이기 때문이요,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니다.'

'당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다른 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지 마시오, 마치 자신이 종인 것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들여다 보시오. 몇몇 이들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나, 다른 이들은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고통 받는 자들을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예언자 무함마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진실되고 공통된 가르침을 강조했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나는 모든 사람들 중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예언자들은 서로 형제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다르나, 종교는 하나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 받을 자 없고,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두지 않으심과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종이며 사도이고, 예수는 그의 종이며 사도이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혼이 주어졌고, 천국은 진리요 지옥도 진리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좋은 행위와 함께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선행이 적다할 지라도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슬람의 초대 (Islam's invitation to Christians)

많은 아랍의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 생전에 혹은 직후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메시지의 간결한 진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협조자의 출현과 성서의 예언에도 그를 언급했다고 확신했다. 예언자의 생활과 가르침이 세세하게 기록된 역사상의 예언자를 찾는 이들은 예언자 무함마드—특히 서구에서 잘못 이해되어진 또 한명의 지도자—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할 것이다.



꾸란의 구절로 결론을 지으면,

(We conclude with the words of the Qur'an)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이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오라하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유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님과 비교하지 말라 이르되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임을 지켜보라 말하라' (꾸란 3:64)

'그대는 믿는 신앙인들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유대인과 이교도들 가운데서 발견하리라. 또한 그대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요 라고 말하며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그들을 발견하리니 이는 오만하지 않는 성직자들과 배움에 열중하는 학자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을 들을 때 그들의 눈들이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을 보더라. 이는 그들이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주여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순교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소서 라고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저희에게 계시된 진실을 믿으매 무엇이 막으리요. 저희는 선량한 백성들과 함께 천국감을 주님께 바라나이다' (꾸란5:82-84)

- 이 글의 꾸란 번역은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 성서의 번역은 '공동 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1977 을 참조했습니다.

Surah. Maryam(Mary)

Al.Quran 19

Relate in the Book (the story of) Mary, when she withdrew from her family to a place in the East.

She placed a screen (to screen herself) from them; then We sent her our angel, and he appeared before her as a man in all respects. She said: "I seek refuge from thee to ((Allah)) Most Gracious: (come not near) if thou dost fear Allah." He said: "Nay, I am only a messenger from thy Lord, (to announce) to thee the gift of a holy son. She said: "How shall I have a son, seeing that no man has touched me, and I am not unchaste?" He said: "So (it will be): Thy Lord saith, 'that is easy for Me: and (We wish) to appoint him as a Sign unto men and a Mercy from Us': It is a matter (so) decreed." So she conceived him, and she retired with him to a remote place. And the pains of childbirth drove her to the trunk of a palm-tree: She cried (in her anguish): "Ah! would that I had died before this! would that I had been a thing forgotten and out of sight!" But (a voice) cried to her from beneath the (palm-tree): "Grieve not! for thy Lord hath provided a rivulet beneath thee: "And shake towards thyself the trunk of the palm-tree: It will let fall fresh ripe dates upon thee. "So eat and drink and cool (thine) eye. And if thou dost see any man, say, 'I have vowed a fast to ((Allah)) Most Gracious, and this day will I enter into not talk with any human being'" At length she brought the (babe) to her people, carrying him (in her arms). They said: "O Mary! truly an amazing thing hast thou brought! "O sister of Aaron! Thy father was not a man of evil, nor thy mother a woman unchaste!" But she pointed to the babe. They said: "How can we talk to one who is a child in the cradle?" He said: "I am indeed a servant of Allah. He hath given me revelation and made me a prophet: "And He hath made me blessed wheresoever I be, and hath enjoined on me Prayer and Charity as long as I live: "(He) hath made me kind to my mother, and not overbearing or miserable: "So peace is on me the day I was born, the day that I die, and the day that I shall be raised up to life (again)"! Such (was) Jesus the son of Mary: (it is) a statement of truth, about which they (vainly) dispute. It is not befitting to (the majesty of) Allah that He should beget a son, Glory be to Him! when He determines a matter, He only says to it, "Be", and it is. Verily Allah is my Lord and your Lord: Him therefore serve ye: this is a Way that is straight. But the sects differ among themselves: and woe to the unbelievers because of the (coming) Judgment of a Momentous Day! How plainly will they see and hear, the Day that they will appear before Us! but the unjust today are in error manifest! But warn them of the Day of Distress, when the matter will be determined: for (behold,) they are negligent and they do not believe! It is We Who will inherit the earth, and all beings thereon: to Us will they all be returned, (Al.Quran 19:16-40)

Do Islam and Christianity have different origins?

No! Together with Judaism, They go back to the prophet and patriarch Abraham, and their three prophets are directly descended from his sons, Muhammad from the elder son Ishmael, and Moses and Jesus from the younger son Isaac. Abraham established the settlement which today is the city of Mecca, and built the Ka'bah towards which all Muslims turn when they pray.

이슬람과 기독교는 서로 다른 기원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유대교와 함께 이슬람과 기독교는 예언자 아브라함에 기원을 둔다. 무함마드는 큰 아들 이스마일의 자손 이고, 둘째 아들 이삭은 모세와 예수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메카에 정착지를 만들었고, 카바를 세웠다. 무슬림들은 카바를 향해 예배를 한다.

What do Muslims think about Jesus?

Muslims respect and revere Jesus, and await his Second Coming. They consider him one of the greatest of God's messengers to mankind. A Muslim never refers to him simply as 'Jesus', but always adds the phrase 'upon him be peace'. The Qur'an confirms his virgin birth (a chapter of the Qur'an is entitled 'Mary'), and Mary is considered the purest woman in all creation.

무슬림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슬림은 예수를 존경하고 그의 재림을 기다린다. 무슬림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위대한 사도들 중 한 사람으로 여긴다. 무슬림은 예수를 부를 때 그의 이름 뒤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이라고 덧붙인다. 꾸란 마리아 장에서 그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마리아를 모든 여성들 중 가장 순결한 여성으로 생각한다.

ISLAMIC BOOK CENTER
&

Adam Publishing House

137/46, Itaewon-Dong, Yongsan-Gu, Seoul, Korea

Tel : 00822-794-0968 E-mail : islaminkorea@yahoo.com



아담출판사

이슬람 및 한국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www.quran.or.kr www.muslimkorea.net

www.koreaislam.org www.islamkorea.org